2013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3.12.26(목) 12:00~14:00

■ 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뉴스Y 채널번호 23번 통일 관련

- 뉴스Y 아날로그 채널번호 25번이 아직 있는데 23번보다 오히려 좋은것 같음. 24시보다 더 나아간 25시 뉴스라는 이미지 강해 23번 통일 아직 안되었더라도 채널번호 이미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(한박무 의원)

▲ 시청률 상승

- 뉴스Y를 그동안 꾸려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더 잘 이끌어 나가서 경쟁사를 뛰어넘는 뉴스Y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(박영상 위원장)

▲ 외래어 사용 및 잘못된 표현 등 개선필요

- 방송의 세계화 추세 등으로 영어 사용이 너무 많고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도 많음. 프로그램 제목의 경우 예를 들어 쾌도난마, 시시비비, 신통방통 등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욱 강한 영향을 주기도 함. 따라서 '뉴스다이제스트'는 주요뉴스를 집중 요약한다는 의미로 '한 눈에 보는 뉴스Y', '글로벌Y'는 '지구촌 이모저모' '시사터치'는 '시사한마당' 등과 같은 우리말로 변화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음(최종준 위원)
-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. 크리스마스 관련 내용 중 "모든 여러분"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개선이 필요함(김정연 위원)
- 전반적인 뉴스Y 주황색 색조 문제와 뉴스의 시차오류 극복문제 그리고 홈페이지의 날짜 자동변환문제와 같은 사소하지만 시청자 특히 젊은 층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선이 필요함(최종준 위원)

▲ 프로그램 기획 의견

- 대학에서 인문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. 뉴스와이에서 타사에서 다루지 않던 소재인 전문적인 인문학 문사철에 관한 시리즈물로 1년짜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프로그램 차별화에 도움될 것(홍승용 위원)
- 논문 중에서 SNS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이 넘쳐나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면이 중요시 되는 추세 안타까워 방송에서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면 좋을 것(박영상 위원장)